

'2025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매출 규모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3%,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이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는 <2025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상반기 결산>과 최근 5년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총거래액은 **약 5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지난 5년간 결과—2024년 약917억원, 2023년 약811억원, 2022년 약1446억원, 2021년 약1438억원—와 비교해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이 얼마나 침체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낙찰률 48.77%**은 지난 5년간 대비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2024년 49.8% · 2023년 52% · 2022년 65.3% · 2021년 65.4%)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총출품작 역시 261점이 줄어든 10,784점**(2024년 11,045점 · 2023년 14,851점 · 2022년 15,766점 · 2021년 16,822점)이었으며, **낙찰 작품은 250점이 줄어든 5,259점**(2024년 5,509점 · 2023년 7,724점 · 2022년 10,296점 · 2021년 10,999점)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낙찰총액 1위는 이우환 작가가 약 39억원, 낙찰률은 52%로, 다시 정상 자리를 되찾으며 건재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낙찰총액은 지난해보다 반토막 수준이어서, 현재 국내 미술시장 경기가 맹주였던 블루칩 작가마저 주춤하게 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참고로 역시 1위를 차지했던 2022년의 이우환 낙찰총액은 200억원으로 이번 상반기의 5배가 넘었었다.

(2024년 김환기 낙찰총액 60억원, 낙찰률 63.64% / 2023년 이우환 낙찰총액 72억원, 낙찰률 54.03% / 2022년 이우환 낙찰총액 200억원, 낙찰률 75.5% / 2021년 이우환 낙찰총액 187억원, 낙찰률 86% / 2020년 이우환 약 61억원, 78.26% / 2019년 김환기 약 145억원, 70.59%)

경매사별로 살펴보면 **K옥션이 약253억원**(지난해 248억원)로 약210억원인 서울옥션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낙찰총액 1위 경매사의 평균 낙찰률이 52.11%로 2위 서울옥션 49.95%와 큰 차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3위 마이아트 옥션이 63.64%를 기록해 크게 앞섰다. 이는 고가에 낙찰된 작품이 그만큼 메이저 경매 양사에 쏠려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경매의 횟수가 1/3정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김영석 이사장은 “최근 5년간 비교할 때 지나치게 미술시장 규모가 위축된 것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발생한 정치적 이슈의 지속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내외 정세의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유동성 자금이 미술시장에 유입되기 위한 제반적인 정책지원의 부재도 미술품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일 것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와 현실적인 정책 개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이 향후 미술시장에 어떤 긍정적 전환점을 제공할지 기대된다.”라고 분석했다.

최고 낙찰가 1위는 지난 5월 서울옥션에서 낙찰된 이우환의 Dialogue(218.5×291.3cm) 16억원이 차지했다.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낙찰가 1위를 고수해온 해외작가의 작품 대신 한국의 근현대 작품이 차지했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작년 최고 낙찰가인 50억원 수준에 비해 올해 최고가 수준이 약1/3 정도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2024년 최고 낙찰가 1위 김환기 50억원 / 2023년 최고 낙찰가 1위 백자청화오조룡문호 70억원 / 2022년 최고 낙찰가 1위 쿠사마 야요이 44억원 / 2021년 마르크 샤갈 42억원 / 2020년 쿠사마 야요이 14억5천만원)

최고가 상위 10순위 중엔 **각기 다른 작가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생존작가 5명, 해외작가 2명, 40세 전 후작가 1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별 낙찰총액 상위 5순위는 1위 이우환(약39억원 · 52.0%), 2위 이배(약 36억원 · 64.6%), 3위 김환기(약25억원 · 60.0%), 4위 김창렬(약22억원 · 69.6%), 5위 박수근(약17억원 · 62.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최초로 5위 모두 한국

작가가 차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낙찰총액은 1위지만 낙찰률은 52%로 5순위 중 최하위임이 주목된다.
(2024년 1위 김환기(약60억원 · 63.6%), 2위 이우환(약 30억원 · 58.0%), 3위 윤형근(약29억원 · 88.8%), 4위 박서보(약25억원 · 70.4%), 5위 쿠사마야요이(약25억원 ·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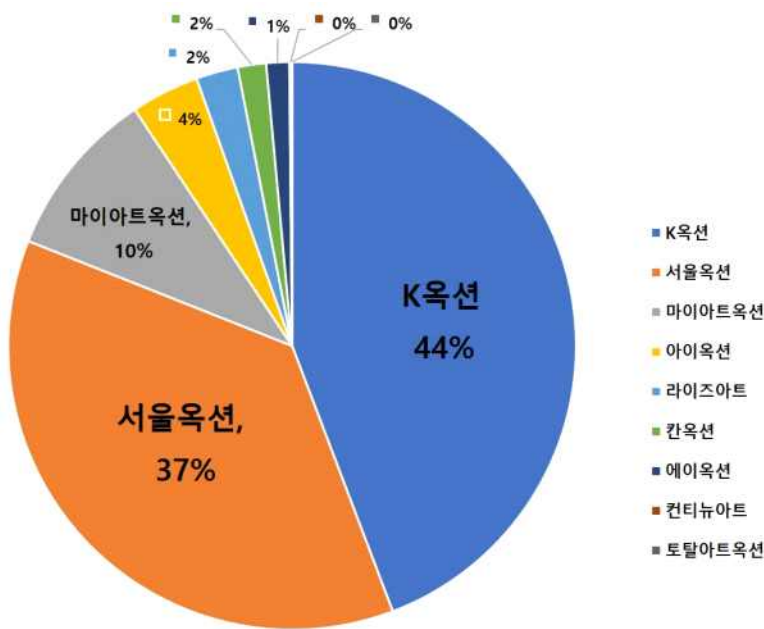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9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컨티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 토탈아트옥션)에서 올해 1월~6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결과이다. 다만 06/30 토탈아트옥션 온라인 경매는 제외되었다.

2025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부문별 결산 도표 및 그래프

1. 경매사별 총 낙찰총액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K옥션	25,301,950,000	1,706	889	52.11
서울옥션	21,044,850,000	2,741	1,369	49.95
마이아트옥션	5,508,950,000	286	182	63.64
아이옥션	2,222,970,000	2,245	1,368	60.94
라이즈아트	1,363,700,000	978	506	51.74
칸옥션	926,750,000	455	278	61.1
에이옥션	752,180,000	981	569	58
컨티뉴옥션	86,850,000	640	98	15.31
토탈아트옥션	0	752	0	0
총합계	57,208,200,000	10,784	5,259	48.77

2. 경매사별 비중도



서울옥션과 K옥션 양대 경매사 비중이 81%를 차지해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2025 상반기 국내 경매 낙찰가 1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이우환	Dialogue	acrylic on canvas	218.5×291.3cm	2019	1,600,000,000	서울옥션	2025.05.27
2	안중근	녹죽	ink on paper	69.3×34cm	1910.2	940,000,000	서울옥션	2025.04.22
3	김창열	물방울 ABS N° 1	리넨에 유채	198×123cm	1973	860,000,000	K옥션	2025.03.19
4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메소나이트에 유채	29.3×16.1cm	1964	800,000,000	K옥션	2025.05.28
5	김환기	무제	코튼에 유채	120×85.5cm	1969	780,000,000	K옥션	2025.01.22
6	박수근	노상	메소나이트에 유채	20.5×24.8cm	1962	650,000,000	K옥션	2025.06.25
7	마르크 샤갈	Profil au Bouquet	tempera and gouache on masonite	45.3×37.1cm	1981	600,000,000	서울옥션	2025.06.24
8	이우환	조용	캔버스에 안료	145.5×114.5cm	2002	580,000,000	K옥션	2025.03.19
9	이우환	바람과 함께	캔버스에 안료	91×116.8cm	1990	490,000,000	K옥션	2025.04.23
10	쿠사마 야요이	Hat	캔버스에 아크릴	15.8×22.7cm	1990	450,000,000	K옥션	2025.06.25

4. 작가별 낙찰총액 10순위 작가 (생존작가 5명, 50%. 해외작가 2명, 40세 전후 1명)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이우환 (1936~)	3,894,530,000	123	64	52.03
2	이배 (1956~)	3,609,000,000	79	51	64.56
3	김환기 (1913~1974)	2,505,750,000	50	30	60.00
4	김창열 (1929~2021)	2,150,050,000	46	32	69.57
5	박수근(1914~1965)	1,720,230,000	8	5	62.50
6	박서보 (1931~2023)	1,553,200,000	73	35	47.95
7	전광영 (1944~)	1,534,000,000	36	23	63.89
8	아야코록카쿠(1982~)	1,367,700,000	28	22	78.57
9	쿠사마 야요이 (1929~)	1,338,800,000	49	26	53.06
10	유영국(1916~2002)	1,266,050,000	18	15	83.33

5. 장르별 비중도

